

A 책형을 중심으로

2009. 5.23 수탁 지방직 국어 시험 출제 분석

1. 어문규정 2
2. 쓰기, 올바른 문장 6
3. 사자 성어, 한자 3
4. 지문 독해(문학,비문학 포함) 6
5. 고전 문학 1
6. 기타 2

문항	1	2	3	4	5	6	7	8	9	10
정답	㉠	㉢	㉣	㉠	㉡	㉠	㉢	㉢	㉡	㉢
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	㉣	㉡	㉣	㉡	㉣	㉠	㉢	㉣	㉠

1. 다음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보기>의 예를 옳게 구분한 것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 기>		
ㄱ.지붕 ㄴ.오세 ㅇ	ㄴ.의논 ㄷ.합격률	ㄷ.타향살이 ㅅ.불이다

‘소리대로 적은 원칙’에 따른 예 ‘어법에 맞도록 한 원칙’에 따른 예

- | | |
|-----------|---------|
| ① ㄱ, ㄴ, ㄷ | ㄷ, ㄷ, ㅅ |
| ② ㄱ, ㄴ, ㄷ | ㄷ, ㄷ, ㅅ |
| ③ ㄴ, ㄷ, ㅅ | ㄱ, ㄷ, ㄷ |
| ④ ㄷ, ㄷ, ㅅ | ㄱ, ㄴ, ㄷ |

정답 ①

해설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 지붕, 의논, 오세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 타향살이[타향사리], 합격률[합경률], 불이다[부치다].

문 2.어문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기여하고저, 빼드렁니, 돌(‘첫 생일’), Nakdonggang(‘낙동강’)
- ② 퍼분다, 쳐부수다, 수태지, Daegwallyeong(‘대관령’)
- ③ 안성마춤, 샅쟁이, 더우기, 지그잭(‘zigzag’)
- ④ 고살, 일찍이, 굶주리다, 빠리(‘Paris’)

정답 ③

해설 ① 기여하고저→기여하고자

② 퍼분다 →퍼붓다

③ 안성마춤-> 안성맞춤, 샅쟁이 -> 살쟁이, 샅 더욱이->더욱이
 지그잭-> 지그재그

④ 굶주리다 -> 굶주리다, 빠리 -> 파리

3. ㉠~㉣ 중 문맥상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상은 제상을 제외하고는 판 둘레에 최소 ㉠순가락
락충폭만큼의 ㉡운두가 둘러 있다. 그것은 첫째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함이요, 둘째는 거기에 걸쳐 놓
 은 수저를 신경 안 쓰고 집어 올려 쓸 수 있게 하려 하
 는 배려에서이다. 둘레가 ㉢도두룩하게 ㉣내둘리지 않고
 막 끊긴 식탁은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지기가 일쑤고, 수
 저 뒀을 따로 놓아야 수저를 편하게 집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④ ‘둘리다’가 맞는 표현이다.

- ① 순가락충: 순가루의 자루
- ② 운두: 그릇이나 신 따위의 둘레나 둘레의 높이.
- ③ 도두룩하다(북한어): 보기 좋을 정도로 자라나 있다.
- ④ 내둘리다: 갑자기 정신이 아찔하여 어지러워지다

4. 밑줄 친 부분의 연결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하는 시청 직원들은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
- ② 구조조정을 할 때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주인 의식, 곧 회사 일과 개인적인 일을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 ③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인 쥐는 ER(형질내세망)의 스트레스가 증가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태는 비만이 발생한 상황에서 ER이 위축되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④ 한 증권사의 담당자는 내년 초 주가지표에 대해 2,000포인트 돌파를 외치기도 하고, 다른 증권사의 담당자는 연내 초강세장의도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증권사도 아직은 관망을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답 ①

해설 ① 정작: 요긴하거나 진짜인 것. 또는 그런 점이나 부분. 긴히, 꼭, 막상

- ② 곧: 바꾸어 말하면 -> 주인의식, 곧 회사 일이 자기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 ③ 다시 말해서-> 불필요함 삭제
 이런 사태는 비만이 발생한 상황에서 ER이 위축되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④ 그래서-> 그러나 증권사도 -> 증권사는

5. 밑줄 친 부분을 사자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어젯밤 열한 시 경, 시내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김모 씨가 계산을 할 때가 되자 갑자기, “이렇게 값이 싼 것은 나를 우습게 봐서가 아니냐?”며 트집을 잡고, 설명하려던 가게 주인을 우산 꼭지로 찌르고, 유리 진열장 등을 망치

로 부수다가, 달려온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비싼 음식을 싼값에 먹었고 지불할 돈도 얼마든지 갖고 있는데, 요즘이 너무 싸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 ① 賊反荷杖 ② 牽強附會
③ 小貪大失 ④ 反面教師

정답 ②

해설 억지 부리는 상황이므로 ②번이 옳다.

- ①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②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③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④ 반면교사(反面教師):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란 뜻으로, 중국에서 제국주의자·반동파·수정주의자를 이르는 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6~문 7]

이주노동자들이 사냥개에게 쫓기는 약한 동물들처럼 내몰리는 모습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재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잖아.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 피부색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재들이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어.’ 한국은 동질적인 사회이고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에서는 이들의 인권이 숨길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이 없다. 시민권은 나누고 분리하는 개념이다. 세금을 낸 시민이 정부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시민권이라면 그리고 뽕샘을 잘하는 것이 시민권이라면, 인권은 포괄하고 더하는 개념이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처럼 겉으로는 시민이지만 사실상 시민 대접을 받지 못하는 차별받는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설계하는 게 인권의 개념이다. 시민권 개념 안에서 인권을 바라보면 창문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창문(window)의 어원은 ‘바람의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다. 이 뜻을 따르면 창문은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는 바람의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게 된다. 인권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인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의무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구성원끼리 서로 ㉢배척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시민권보다 서로의 이해를 통해 통합으로 나아가는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

6. 밑줄 친 어휘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墜落 ② ㉡-待遇 ③ ㉢-排斥 ④ ㉣-葛藤

정답 ①

해설 ① 추락(墜落)-> 타락(墮落) ② 대우(待遇) ③ 배척(排斥) ④ 갈등(葛藤)

7. 위의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다보기 - 들여다보기
② 분리의 원칙 - 포괄의 원칙
③ 동질성 조장 - 이질성 조장
④ 시민 중심의 설계 - 인권 중심의 설계

정답 ③

해설 이 글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시민권적 개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인권적 개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시민권적 개념: 창 안에서 창 밖을 본다 - 내다보기
나누고 분리하는 개념 - 이질성 강조
시민 중심의 설계

인권적 개념: 바람의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것 - 들여다보기
포괄하고 더하는 개념 - 통합
인권 중심의 세계

8.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행동 양식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도 한다. 이것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은 여러 모로 매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즉 사회적 증거에 따라 행동하면,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 왜냐하면 다수의 행동이 옳바르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증거의 특성은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름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맹목적으로 이를 따르게 되면 그 지름길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불로소득자들에게 의해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① 영희는 고속도로에서 주변의 차들과 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다.
② 철수는 검색 우선순위에 따라 인터넷 뉴스를 본다.
③ 순이는 발품을 팔아 값이 가장 싼 곳에서 물건을 산다.
④ 명수는 여행을 가서 밥을 먹을 때 구석진 곳이라도 주차장에 차가 가장 많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정답 ③

해설 사회적 증거 법칙 적용의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①은 잘못

적용된 사례고 ②와④는 맞게 적용된 사례

9. 다음 글을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어느 지점부터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 생활을 해 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소는 경작을 위한 중요한 필수품이지 식용 동물로 생각할 수가 없었으며, 단백질 섭취 수단으로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가 선택되었다.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농경 생활을 했음에 틀림없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 수렵을 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의 소처럼 중요한 동물이 되었고 당연히 수렵한 결과인 소 등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했다. ㉡일반적으로 개고기를 먹는 데 혐오감을 나타내는 민족들은 서유럽의 나라이다. 그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즐겨먹는다. ㉢그러나 식생활 문화를 달리 하는 힌두교도들은 쇠고기를 먹는 서유럽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또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들도 서유럽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식생활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해설 문단 나누기

전반부는 농경생활문화로 인해서 소가 아닌 단백질 섭취 수단이 개이고 유럽은 수렵 문화로 인해서 단백질 섭취 수단이 소라고 밝히고 있다.
후반부는 각 민족 또는 지역에 따른 단백질섭취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화제 전환이 된 ㉡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10. 다음 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 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기호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두 생각을 똑똑히 그리고 한결같이 구별하지 못하리란 것은 철학자나 언어학자나 다 같이 인정하는 바이다. 언어가 나타나기 전에는 미리 형성된 관념이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생각도 분명해질 수 없다.

- ①인간은 언어 사용 이전에도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②언어학자들은 언어를 통해 사고를 분석한다.
③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다.
④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다.

언어가 없으면 사고할 수 없다는 언어 우위론에 관한 내용으로, 이 글의 전제는 말(언어)과 생각(사고)은 일정한 관련이 있다.로 보아야 한다.

11. 다음 기사에 나타난 통계를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일본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사

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04년 전국 1만 71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가구 동태 조사를 보면, 가구당 인구수는 평균 2.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인가구는 28.7%로 5년 전 조사 때보다 조금 증가한 반면, 4인가구는 18.1%로 조금 줄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30~34살 남성의 45.4%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층 여성의 부모 동거 비율은 33.1%였다. 5년 전에 비해 남성은 6.4%, 여성은 10.2% 증가한 수치다. 25~29살 남성의 부모 동거 비율은 64%, 여성은 56.1%로 조사됐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기혼자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독신으로 부모로부터 주거와 가사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으로 추정된다.

- ① 25~34살의 남성 중 대략 반 정도가 부모와 동거한다.
- ② 현대사회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만혼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 ③ 30~34살의 경우 부모 동거비율은 5년 전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 않았다.
- ④ ‘캥거루족’이 늘어난 것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④

해설 ② 만혼 현상은 직접 언급된 내용은 아니나 주어진 글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나이대가 25~29살(64%, 56.1%) 30~34살(45%, 33.1%) 보아 알 수 있다. 4번은 부모와 늦게까지 동거할 수밖에 없는 한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직장을 구하고자 하지만 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으므로 캥거루족의 어원적 측면으로 이해할 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요즘 젊은이들의 세태를 꼬집어 말하고 있는 이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12. 다음은 문장 성분상 결함이 있는 문장들이다. 그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외국에 나가면 말은 저절로 배운다는 이유만으로 훌쩍 떠났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 ② 나자프의 질서 회복을 위해 특수부대 병력을 파견했으며, 밤 11시 이후 통금령을 내렸다.
- ③ 결국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일 것이다.
- ④ 회사는 방송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답 ④

해설 ① 주어 ② 주어 ③ 주어 ④ 수익금 일부를 (~에) 활용할: 부사어

13. 밑줄 친 색채어의 뜻이 원래의 뜻과 가장 떨어진 것은?

- ① 경거망동하는 것을 보니 씩수가 노랗다.
- ② 어느 누가 들어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③ 말 한 마디에도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 수 있다.
- ④ 밤을 하얗게 새우고서야 겨우 마감 시간을 지킬 수 있었다.

정답 ②

해설 ②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은 완전한 날조의 의미, 색깔의 의미가 전혀 없음.
① “씩수가 노랗다”는 ‘씩수’는 씨앗에서 처음 나오는 어린잎이나 줄기를 이르는 말로 처음부터 잎이 노라니 희망이 애초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 쓰임. 따라서

색감이 드러나 있다.

③ 시퍼런 명: 명의 색깔이 시퍼렇다:

④ ④ 밤을 하얗게 새우다 ‘하얗게’ 뜬 눈으로 밤을 새다의 뜻으로 밤이 새면 날의 밝아오는 현상을 고려할 때 하얗다의 색감은 있다.

14.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쓸 수 있는 글의 주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버스나 전철의 경로석에
앉아서야 되겠는가?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밤중에 붉은 신호등을 지킨
장애인 운전기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까지 써서 돈을 벌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①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일관된 행위를 해야 한다.

②민주 시민이라면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③도덕성 회복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④개인의 이익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규약은 지켜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답지 3번은 주어진 것만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며 비약적인 주제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를 찾는 문제이므로 주어진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찾으면 된다.

피곤함- 앉고 싶다(개인의 이익) 그러나 경로석은 노인을 우대하는 좌석(사회 구성원 합의)

빨리 가야 한다(개인적 이익) 그러나 붉은 신호등(지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 합의)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개인적 이익) 그러나 그 방법은 정당해야 한다(사회적 구성원의 합의)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5~문 16]

군청에서는 관 위주 행정의 관행을 없애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감동 행정’을 펼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가)특히 군정에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군민과 공직자를 상대로 군민 행복을 위한 ①참신한 의견을 ②수렴하고 ‘공직자 변화 노력 ③선포식’을 열기로 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나)김 군수는 “공무원들의 변화만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낡은 사고, 관 위주 행정의 낡은 관행을 우선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체 공직자가 자기 계발과 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다음 달 정례 조회 때 있을 공직자 변화 노력 선포식에서는 전체 공직자가 결의문을 채택해 자기 개혁에 적극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라)특히 읍주운전자 차량에 동승하여 읍주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못해 읍주운전에 이르게 한 공무원도 사안에 따라 ④문책

할 방침이다.

15. 밑줄 친 어휘의 한자 표기로 모두 옳은 것은?

㉠ ㉡ ㉢ ㉣

- ① 懺新 收斂 宣布 聞責
- ② 斬新 收斂 宣布 問責
- ③ 斬新 受斂 宣布 聞責
- ④ 懺新 受斂 宣布 問責

정답 ②

해설 ① 참신(斬新) ② 수렴(收斂) ③ 선포(宣布) ④ 문책(問責)

16. 글의 통일성으로 보아 빼야 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가) ②(나) ③(다) ④(라)

정답 ④

해설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강조하고자, 기존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변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기에 우발적인 행동에 의한 잘못된 공무원의 행동은 전체 글의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다.

17.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편에서 봐야 하며,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조건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준칙을 강조하는 것은 기자들의 기사 작성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보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사가 보도되게 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으므로 진실 보도는 일반적으로 수난의 길을 걷게 마련이다. 신문은 스스로 자신들의 임무가 ‘사실 보도’라고 말한다.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신문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려는 권력과 이익 집단, 그 구속과 억압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①진실 보도를 위하여 구속과 억압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②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
- ③신문의 임무는 ‘사실 보도’이나, 진실 보도는 수난의 길을 걷는다.
- ④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하여 전체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글의 요지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글의 요지는 신문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라고 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문장이 중심 내용이고 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①번 진실 보도를 위하여 구속과 억압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가 맞다.

18. 다음 시조들 중 창작 의도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가)청산은 어이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굶지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하리라
- (나)아버이 사라신 제 섬길일란 다 하여라.
디나간 후면 애닦다 엇디 하리
평생에 고틀 못할 일이 잇뿐인가 하노라.
- (다)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일러 다 못 일러 불려나 푸듯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은 나도 불려 보리라.
- (라)내해 조타 하고 남 슬흔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義 아니면 좇지 말니
우리는 天性을 직회여 삼긴 대로 하리라.

①(가) ②(나) ③(다) ④(라)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 교훈적 성격을 가진 반면 ③은 노래를 통해 시름을 달래고자 한 서정적인 노래

19. 다음 문장들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ㄱ.이는 말레이 민족 위주의 우월적 민족주의 경향이 생기면서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데 뒤쳐진 경험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대비되기도 한다.
- ㄴ.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다.
- ㄷ.영어 공용화 국가의 상황을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 공용화 실시는 인종 중심적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ㄹ.그러나 영어 공용화 국가는 모두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단일 민족 단일 모국어 국가와는 처한 환경이 많이 다르다.
- ㅁ.특히, 싱가포르인들은 영어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어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성을 일찍부터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①ㄷ-ㄱ-ㄴ-ㄱ-ㄱ-ㄴ ②ㄷ-ㄴ-ㄱ-ㄱ-ㄱ-ㄴ
③ㄷ-ㄱ-ㄴ-ㄴ-ㄴ-ㄱ ④ㄷ-ㄴ-ㄱ-ㄱ-ㄱ-ㄴ

정답 ④

해설 논리적 순서를 맞추는 문제이다. 답을 고를 때 내용의 인접성과 지시어, 접속어를 고려해서 그 순서를 찾아야 한다.

일단 답지는 ㉔으로부터 출발한 내용이니 조금은 수험생들이 접근도가 빨랐을 것

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ㄱ, ㄴ, ㄹ의 순서만 고려하면 될 것이다.

ㄷ- 영어 공용화는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

ㄴ-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 이러한 점(ㄷ내용 받음)- 내용의 인접성과 지시어를 고려할 때 ‘ㄷ’ 문장 끝에 언급된 용어를 ‘ㄴ’ 첫 문장에서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ㄹ-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통해 얻어진 긍정적인 효과의 구체적인 사례

ㄱ- 이는(ㄹ의 내용 받음)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실패한 말레이시아

ㄷ- 그러나 (역접) 이러한 다원주의적 정체성은 다민족 언어 국가와 관련된 것이기에 단일 모국어 국가인 한국과는 다르다.

따라서 ‘ㄷ-ㄴ-ㄹ-ㄱ-ㄷ’가 맞다.

20. 밑줄 친 부분의 말하기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형님 놀부 댁에서 쫓겨나 마을 어구에 당도하니 여러 아이놈들이 밥 달라는 소리가 귀를 찢는다. 그러더니 흥보 큰아들이 나왔으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또 어찌하여 이상한 목소리를 내느냐?”
“어머니 아버지, 날 장가 좀 들여주요.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 갑니다.”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더욱 기가 막히더라.

- ①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권자에게) “저는 여러분의 충실한 대변인이 되고 싶지 출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 ② (약속에 늦게 와서 기다리는 친구에게) “미안해, 난 일찍 출발했는데 길이 워낙 막혀서 말이야.”
- ③ (자꾸 그릇을 깨는 동생에게) “아니, 너 혹시 그릇 집에 뭐 잘 보일 일이 있는 거 아냐?”
- ④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아이에게) “그래도 걸을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

정답 ①

해설 본심 숨기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①번이 맞고, ③은 반어적 표현으로 비아냥거림이 있는 표현이다.